

대학 발전기금 후원 안내

학술 연구기금, 도서기금, 장학기금, 연구기자재 기금 등으로 활용되어 있고 있는 금오공과대학교 발전기금은 동문 여러분과 학부모, 기업체 또는 기관·단체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부의 형태 현금, 주식 및 유가증권 등

참여방법 ☞ 계좌이체 : 농협 785-01-037878(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대구은행 504-10-103390-1 (금오공과대학교발전후원회)
 ☞ 자동이체(CMS)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가능

문의처 전략기획팀 Tel : 054-478-7080 E-mail : lucky@kumoh.ac.kr



VOL. 170
 2014
 09-10

금오공대 소식

www.kumoh.ac.kr

기증자에 대한 예우

순번	예우 내용	5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1백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1	총장명의 감사패 증정	0	0	0				
2	후원자 현황판 이름 각인	0	0	0	0	0	0	
3	기탁 증서 발급	0	0	0	0	0	0	0
4	도서관 자료 대출	20년	15년	10년	5년	3년	1년	
5	본교 출입시 무료주차증 발급	20년	15년	10년	5년	3년	1년	
6	골프학습관 이용료 면제 및 할인(본인)	100%	100%	100%	100%	100%	100%	50%
		20년	10년	7년	5년	3년	1년	1년
7	교육비 할인 - 평생교육원 - 국제교류교육원	100%	100%	50%	30%	20%	10%	
		20년 (본인 및 배우자)	10년 (본인 및 배우자)	5년 (본인 및 배우자)	3년 (본인)	2년 (본인)	1년 (본인)	
8	공통사항	○ 발전기금 기탁자 전원에게 - 감사편지, 영수증 발행, 학교 홍보물(소식지 등)발송						

※ 시설 이용 및 서비스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기획협력처(☎054-478-7080)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공대의 날' 행사

의료지원실, 힐링공간으로 새단장

우리 대학 의료지원실이 구성원들의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했다. 그동안 진료를 위한 공간으로만 여겨지던 의료지원실은 지난 여름방학동안 환경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고 구성원들이 심리적·정신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열려있는 자연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채광이 잘 되도록 대기실을 조성하는 한편, 기존에 진료실과 대기실의 공유로 인해 발생된 소음과 사생활 침해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 이송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넓은 이동 통로를 확보해 비상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도록 배려했다.

의료지원실의 공간 구조를 기획, 설계한 건축학부 안동준 교수는 "진료실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독립된 공간으로의 기능을 반영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안정실도 1인 1실로 구성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정을 최대한 배려하여 쾌적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밝혔다.

사업을 주관한 이동구 학생처처장은 "의료지원실은 단순한 1차적 기능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체크하고 상담하며,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변화된 의료지원실을 더욱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실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에 따라 교육도 가능한 가변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이처럼 건강한 대학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로 재탄생한 의료지원실은 이용자 5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설 만족도 조사에서 96.1점이라는 높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전년도 시설 만족도 71.5점에 비해 34% 향상된 것이다.

이용안내

- 진료대상 : 학생(대학원생 포함) 및 교직원
- 운영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순회진료 운영(학기 중)
 - 매주 화요일 (14:00~17:00) 한의과
 - 매주 목요일 (14:00~17:00)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문 의 : ☎ 478-7119 의료지원실(학생회관 103호)



금오 인(人)
11

06
금오 포커스



12
금오 뉴스



17
금오 산학협력

02 금오 포커스

의료지원실, 힐링공간으로 새단장

04 금오 이슈

- 국립대학 혁신부문 연속 최우수 평가
- 전국 국·공립대 중 취업률 3위

06 금오 인(人)

- 광시스템공학과 '삼광' 팀 '2014 캔위성 경연대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 해외봉사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뿔롱' 팀 우승!
- "방학,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 2014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대회 선행기술부문 우수상, 장려상 수상
- 응용수학과 황홍택 교수한국인 최초 브리지스 컨퍼런스 Most Effective Use of Mathematics수상
-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조경식 교수 한국세라믹학회 대·경지부 심포지엄 성료
-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김성진 교수 Best Poster에 선정

신소재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알라베르게노프 부니어드 대학원생 Best Poster에 선정

오토매니아,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장려상 수상

신소재시스템공학부 박진욱 학생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장학금 대상자 선정

12 금오 뉴스

- '금오공대의 날' 맞아, 나눔 실천 프로야구 삼성-기아전 소외계층 초청·구성원 화합 도모
-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 tech+ 리더십 캠프 개최
- 지역고교 연계 특별교육과정 운영
- 2015학년도 수시 모집 7.95대 1로 마감

15 금오 산학협력

- kit 융합기술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개최
- 창조적 ICT융합 인재양성 위한 융복합 창의워크숍 개최
- 제3회 산업 IT융합 국제 워크숍 개최
- 제23회 kit* 산학연관포럼 개최
- 엘링크링거 코리아(주)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18 금오동정

19 금오사랑

국립대학 혁신부분 연속 최우수 평가

7월 31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4년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 평가에서 우리 대학이 최우수 평가를 받아 9억3천3백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게 됐다.

우리 대학은 지난해 '2013년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에서도 최우수로 선정돼 6억4천7백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이 분야의 평가 이레 연속하여 최우수 평가를 받게 됐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은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의 주요 과제로 대학 혁신을 통해 운영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발전을 견인하는 국립대학의 역할을 정립한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37개 국립대학을 대학의 규모별, 특성별 4개 유형으로 나누어 상위 25% 내외를 선정해 지원규모를 정하게 된다. 우리대학은 해당 유형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최고 금액을 지원받게 됐다.

김영식 총장은 "이번 사업의 선정결과는 금오공대가 교육, 특성화, 사회 공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으며, 김태성 기획협력처장은 "우수한 대학운영체제 개선과 특성화 전략을 통해 국립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여 더욱 발전하는 대학의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은 올해 LINC사업 1단계 사업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으며 2단계 지원사업에도 선정됐을 뿐만 아니라, 2013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컴퓨터 SW분야 '최우수', 2014 창조 ICT융합인재양성사업 선정, 대학 특성화 사업에 3개 사업단이 선정되어 교육·연구·산학의 모든 분야에서 작지만 강한 대학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 중 취업률 3위

국·공립대 중 특수목적 해양대 제외하면 가장 높아
취업자 중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비율 52.0%에 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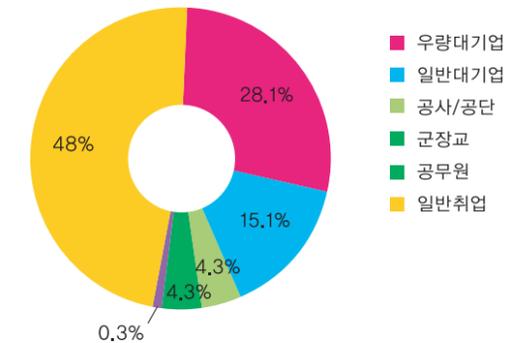
8월 29일, 교육부가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발표한 '2014년 대학 취업률'에 따르면, 우리 대학이 66.6%의 취업률로 전국 국·공립 32개 대학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특수목적 해양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국·공립대 중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 결과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며 교과과정 개선과 체계적인 교육을 내실 있게 다져왔다. 특히 정부 3대 대형 지원사업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ACE사업'에 선정된 것을 대학 성장의 기회로 삼고 강도 높은 대학개혁을 실천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전국 최고 수준의 취업률 상위권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게 됐다.

2014년 전체 취업자 773명 가운데 대기업 및 공기업 취업비율이 52.0%(402명), 중소기업 취업비율 47.6%(368명), 기타 취업비율 0.4%(3명)로 나타나 '취업률' 뿐만 아니라 '취업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 알찬 대학으로서 한층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순위	대학명	취업률(%)
1	목포해양대	80.8
2	한국해양대	68.7
3	금오공대	66.6
4	울산과기대	65.5
5	서울과기대	62.5
전국 국공립대 평균취업률		51.6

〈2014 전국 국·공립대 취업률〉



〈2014 취업자 취업 분포 현황〉

- ※ 우량대기업 : 일반대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자산규모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상기 우량대기업 중 공기업은 공사/공단으로 따로 분류함)
- ※ 일반대기업 : 고용보험법에 기준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김영식 총장은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취업률을 이뤄 낼 수 있었던 원동력은 기업과 학생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천한 노력의 결실이다.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취업의 질을 높여 역량있는 대학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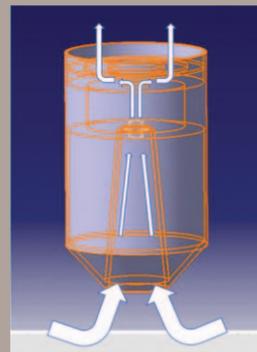
< 광시스템공학과 학부생 3명, '삼광' 팀 '2014 캔위성 경연대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 수상



▲ '삼광' 팀(왼쪽부터 배동혁, 김경수, 김태호 학생)



▲ '삼광' 팀이 제작한 캔위성



▲(공기순환부)
공기순환→내부먼지 순환유도
실리콘 패드 이용→외부 공기와의 차단

광시스템공학과 학부생 3명이 '2014 캔위성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캔위성 경연대회는 인공위성을 직접 제작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여 우주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캔 형태의 교육용 모사위성(CanSat)을 활용해 인공위성을 제작하는 실력을 겨루는 대회다.

창작부(대학부) 24개 팀이 참여한 이번 대회에서는 서류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10팀이 선발됐다. 광시스템공학과 김경수(4학년), 배동혁(3학년), 김태호(3학년)학생으로 이루어진 '삼광' 팀은 캔위성을 직접 기획, 개발하는 모형발표회에서 대기 속의 미세먼지 측정 임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한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우리 대학은 작년에 열린 '2013 캔위성대회'에서도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창의적 과학문제 해결능력을 중요시하는 이 대회에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삼광팀은 대기 중의 미세먼지 측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광 산란에 대한 부분은 전공분야여서 함께 논의하였고, 이외 분야는 각자의 역할분담을 통해 대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경수 학생은 대·내외적 활동과 통신 분야, 김태호 학생은 프로그래밍 설계와 홍보, 배동혁 학생은 외형 설계와 낙하산 부분을 담당하며 각자의 맡은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경연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다.

팀장을 맡은 김경수 학생은 "지난 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박대왕(핵밤송이팀) 학생의 추천을 받아 작년 10월부터 준비했다. 아이디어를 구체화 한 것은 올해 2월쯤으로 살아있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이태동 교수님과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후배들의 적극 참여를 권하여 광시스템학과와 전통으로 이 대회의 수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좋은 멘토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광팀은 현재 11월에 열리는 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의 발표를 준비 중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만 주어지는 미래창조과학부의 해외탐방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 해외봉사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똥롱' 팀 우승!



▲ '똥롱' 팀
(왼쪽부터 전병천, 최태환, 전병기 학생)



▲ 인도네시아 현지 봉사활동 모습

지난 8월 18일부터 23일까지 영남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가 주관으로 열린 해외봉사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학 전자공학부 최태환(3학년), 전병천(3학년), 기전공학과 전병기(3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똥롱' (인도네시아어 tolong / '돕다'의 의미) 팀이 1등을 수상하며 인도네시아 빠순단 대학교(Pasundan University) 현지를 방문하여 공학봉사를 수행하고 돌아왔다.

영남대학교 공학교육거점센터가 주관하는 해외봉사연계형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는 전기사정이 열악한 개발도상국의 열악한 전기 인프라 환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솔라셀을 이용한 태블릿 PC용 추진 시스템 개발'을 주제로 총 11개의 팀이 경합하여 우수작 3팀(금오공대, 영남대, 한라대)이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기술 소개 및 이전을 통한 공학봉사를 수행했다.

똥롱팀은 입사량이 많은 인도네시아의 기후에서 태양에너지를 대체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태블릿 PC와 솔라셀을 접목하여 휴대가 용이한 전력공급 장치로 태블릿 PC Solar Case를 제작하고 우기가 되면 갑자기 풍속이 변하고 비가 내리는 스콜(squall)현상을 접목하여 비치파라솔을 활용한 전력공급 장치 Solar Parasol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을 전수했다.

똥롱팀은 "무언가를 실현 시킨다는 것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것을 크게 느꼈고, 우리가 만든 제품이 인도네시아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기술에 가까웠던 것 같다. 그래서 그곳에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 대단한 관심을 보여주었다. 국적을 불문으로 모두 하나 되어 같이 작품을 만들어보고 교류 할 수 있는 기회여서 너무 행복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똥롱팀은 인도네시아에서의 활동들을 직접 UCC로 제작하기도 했다. 똥롱팀의 활동 UCC는 우리 대학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다.

“방학,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웁니다”

재학생들이 하계방학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초·중학생,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하계방학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의 초·중학생,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웠다.

우리 대학 발명·창업동아리인 '거북선신화'는 매년 방학이면 대구, 경북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kit 발명·창업캠프'를 실시했다. 2004년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초등학교생에게 과학을 통한 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포항 이동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 kit 발명·창업캠프'는 우리 대학 학협력단의 다각적인 지원과 (주)프로템, (주)대경테크노의 후원을 받아 창의력 개발을 위한 발명발상법 교육, 공작활동을 통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험 등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재학생들의 봉사활동은 프로그램 참여 학생의 실질적인 교육효과로 이어져 각종 대학의 입상으로 알찬 결실을 맺고 있다. 실례로 '2012년 제25회 대한민국 학생발명경진대회' 중등부 동상 수상이라는 쾌거를 낳았으며, '2014 대한민국세계여성발명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정다운(메디컬IT융합공학과, 2학년) 학생도 2006년 대구 화원초등학교 5학년 재학 당시 kit 발명·창업교실에 참가했다.

청소년들을 직접 지도하는 발명·창업동아리 '거북선신화(지도교수 최성대)'는 학생들의 기발하고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1991년부터 현재까지 발명·창업관련 활동과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379건의 특허

(실용신안) 출원과 45건의 특허(실용신안) 등록을 보유하고 있다. 건축공학부 교수와 학생이 매년 방학을 맞아 실시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대학봉사활동'도 살아있는 참교육의 현장을 보여 주며 지역 사회에 큰 귀감이 되고 있다. 건축학부 신현익 교수와 건축학부를 주축으로 한 72명의 학생들은 하계방학을 맞아 지난 6월 30일부터 7일간 경북 김천시 아포읍 송천리 일원의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수급가구 등 총 6가구의 집을 고쳐주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재)다솜복지재단이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운동은 2008년부터 시작해 8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 대학은 작년부터 참여해 농어촌 지역의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노후 환경을 개선해 주고 있다. 학생들은 도배 및 장판교체, 장애인용 싱크대 설치, 외벽 도색, 지붕 물받이 교체 등 실생활에서 불편했던 부분들을 수리하고, 환경 미화 등을 통해 마을의 직접적인 일손을 돕는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승준(건축학전공 4학년)학생은 “힘든 가운데서도 깨끗하게 수리된 집을 보면 우리가 해내었다는 기분이 들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며 “학과에서 배운 것들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대회 선행기술부문 우수상, 장려상 수상

지난 5월에 열린 '2014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행기술 조사부문에선 전자공학부 4학년 이동엽 학생이 우수상, 전자공학부 김신철 학생과 소재디자인공학과 4학년 최현진 학생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 이동엽 학생
(전자공학부 4학년)



▲ 김신철 학생
(전자공학부 4학년)



▲ 최현진 학생
(소재디자인공학 4학년)

특허청과 한국공학한림원이 공동주최,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캠퍼스 특허전략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과 연구원 등 총 45개 기관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산업계에 공급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신산학협력대회**이다.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선행기술조사부문과 특허전략수립부문으로 나뉘어 대회가 이루어지는데, 선행기술조사부문은 산업별 기상의 출원서 또 발명요약서에 대하여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 후 특허가능성 판단 및 청구범위를 보정하는 보고서를, 특허전략수립부문은 세부적 기술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특허를 분석하고 연구개발 전략 및 특허획득 방향을 수립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 수상자를 결정한다.

이번 선행기술조사부문에서는 전국 96개 대학 3,058명이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을 뚫고 27개 대학 93명이 값진 수상을 얻었다. 시상식은 현재 진행 중인 특허전략수립부문의 수상자들과 함께 오는 11월 19일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회에 수상한 수상자들은 상금 뿐만 아니라 현재 19개 기업인 취업 우대기관에 입사 지원 시 취업 인센티브와 수상자 네트워크 YIPL(Young Intellectual Property Leaders)에 참여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된다.

우리 대학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기회 확대는 물론 특허역량강화와 발명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특히, 지식재산교육선도대학사업단(창의지식재산센터), LINC사업단 및 ACE사업단 등 재학생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단을 통하여 변리사 및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선행특허조사방법 및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특강과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멘토링을 제공하였으며, 차년도에도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응용수학과 황홍택 교수
한국인 최초 브리지스 컨퍼런스
Most Effective Use of Mathematics 수상



세계 최대의 수학예술통합분야 국제컨퍼런스인 '브리지스 컨퍼런스(Bridges Conference)'에서 응용수학과 황홍택 교수가 한국인으로는 처음 'Most Effective Use of Mathematics' 수상하였다. '아르키메데스의 별'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상하는 2차원의 오각별이 사실은 별의 실제 모양인 3차원 구와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산출할 수 있으며, 이 원리로 산출되는 모든 실체를 아르키메데스별이라고 한다. 이미 황홍택 교수는 2014 Bridges Mathematical Art Gallery 온라인판에서 그의 작품 '정팔면체의 운동, 아르키메데스 돔, 아르키메데스 별 상자, 아르키메데스의 별 꽃' 등이 4개면에 대거 게재된 바 있다.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조경식 교수
한국세라믹학회 대·경지부 심포지엄 성료



8월 23일, 호텔 금오산에서 "인문학과 세라믹 공학의 만남"을 주제로 한국세라믹학회 대구·경북지부(지부장 신소재시스템공학부 조경식 교수) 회원가족과 지역 세라믹산업 종사자들 100여 명이 참석한 심포지엄(한국세라믹학회 대구·경북지부와 금오공대 등 공동주관)을 열고 함께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학에 인문학적 영감을 불어넣는 융합 사고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세라믹학회 회원 중 인문학적 책을 저술한 교수 3명과 시각디자인 전문가의 강연과 만찬 및 교류회가 이어졌다. 세라믹학회의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부 최대 행사로 서 매년 여름 진행되는 대구·경북지부 심포지엄은 성공적인 친목교류 행사로 거듭나고 있다.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김성진 교수
Best Poster에 선정

신소재시스템공학부 김성진 교수는 7월 17일부터 일본 Sendai에서 개최된 '제18차 국제 디스플레이 심포지엄'에 참석하여, "Photoluminescence properties of ZnO/CuOx multilayer Films Deposited by Pulsed Laser Deposition" 타이틀로 포스터를 발표하여 포스터 부문 Best poster에 선정됐다. 발표의 주내용은 펄스 레이저 deposition을 이용한 ZnO/CuOx 다층 박막을 증착하고, 그의 발광 특성을 연구한 것으로 새로운 차원의 LED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신소재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
알라베르게노프 부니어드 대학원생
Best Poster에 선정

신소재시스템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알라베르게노프 부니어드(지도교수 김성진)는 7월 11일에 개최된 '제 5 차 국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및 플라즈마 기술에 관한 학술 대회'에서 포스터 부문에서 Best poster에 선정됐다. 수상한 발표 제목은 "Optical Properties of Cu Doped ZnO Films Prepared by Cu Solution Coating"로서 주 연구 내용은 ZnO Film에 Cu를 흡착코팅하고 확산 처리 등을 통해 확산에 의한 LED용 신소재를 개발하는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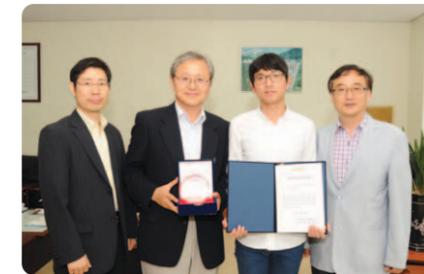


'오토매니아 (Auto-Mania)'
KSAE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장려상 수상

우리 대학 자동차 연구 동아리 'Auto-Mania' (지도교수 기계공학과 김세웅 교수)는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전북 군산 새만금군산자전거경기장에서 열린 '2014 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KSAE Baja & Formula 2014)'에 참가해 Baja 부문 장려상을 차지했다. 팀장을 맡은 김장수(기계공학과 2년) 학생을 비롯해 김기호(지능기계공학과 3년), 김을하(기계시스템공학과 2년)와 28명의 오토 매니아 학생들은 Baja 부문을 평가하는 지표인 가속 3위, 오토크로스 5위, 내구부문에서 2위를 하며 장려상을 거뒀다. 처음 이 대회에 출전한 장성준(기계시스템공학과 2년) 학생은 "항상 자동차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우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이론을 실제 적용해 보자며 참가한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으며, 팀장을 맡은 김장수 학생은 "전자식 연료 분사 방식인 인젝션 타입의 엔진 특성을 살려 연료 분사량과 점화시기를 조정하여 내구성과 동적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 참가할 국제 대학생 창작자동차 경진대회에서도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창단 20주년을 맞이한 오토 매니아는 이미 2002년 전국 저연비 자동차 경주대회 종합우승을 시작으로 국제 대학생 자작자동차 대회 전국 10위(2004년), FSAE WEST 최우수 신인상(2006년), KSAE Mini-Baja 대회 신기술우수상 1등 및 디자인 2등(2008년), 보쉬 충전공구 아시아레이스 한국본선진출(2011년), KSAE Formula 부문 Performance 동상(2012년) 수상 등 지역 최고의 자동차 동아리로 명성을 얻고 있다.



신소재시스템공학부 박진욱 학생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장학금 대상자 선정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이하 한기)에서 매학기 주관하는 '제7기 Power Engineering School Summer Camp'에 참가한 박진욱 학생(신소재시스템공학부, 3학년)이 상위 10명에 들어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됐다. 미래지향적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설립된 한기인재개발교육원에서는 매학기 방학마다 원자력, 화력 및 신기술 분야 최고의 핵심리더를 양성하여 경쟁력 강화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6월 30일부터 7월 9일까지 9박 10일간의 전 일정 합숙으로 실시됐으며, 원자력·화력발전소 설계 개요 등을 포함한 13개 교과목과 정을 강의 및 평가 6일, 문화유적 답사 1일, 원자력 및 화력발전소 견학 등으로 실시됐다.

'금오공대의 날' 맞아 나눔 실천

프로야구 삼성-기아전, 소외계층 초청 · 구성원 화합 도모



우리 대학은 9월 12일 오후 6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행사의 일환으로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금오공대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대구 시민운동장에 재학생, 교직원, 동문 400여 명과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삼성라이온스와 기아타이거스의 프로야구전을 관람했다. 특히 지역사회 나눔의 의미로 우리 대학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회장 조동현)에서는 평소 야구관람 등이 쉽지 않았던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을 후원하여 더욱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구미지역아동센터·거점지역아동센터의 김수영 센터장은 "평소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청소년들이 대학생들과 함께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기회가 됐다. 후원을 해주신 금오공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전에는 '금오공대의 날'을 맞아 정지원 총학생회장(응용화학부, 4학년)과 사무국 김순옥(미화원)씨가 각각 시타, 시구자로 나섰으며, 경품 추첨 및 단체 응원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화합과 교류의 의미를 되새겼다.

정지원 총학생회장은 "당초 개교기념일(5월 22일)에 맞추어 추진하려 했으나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며 "다양한 대학 구성원이 모여 한마음으로 응원한 덕분인지 야구도 이기고, 단합을 도모한 자리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조동현 최고경영자과정총동창회장은 "금오공대만이 아니라 지역과 함께하여 더욱 의미 있는 행사였다.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8월 22일 오후 2시, 본관 대강당에서 '2013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거행했다. 서임교 총동장회장을 비롯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학생, 학부모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이날 수여식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졸업생들의 앞날을 축하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는 학사 377명, 석사 94명, 박사 11명 등 총 482명이 학위를 받았다. 특히 대학 인재상인 'kit인재인증제도(참·든·난·큰사람 인증)' 가운데 산업시스템공학전공의 윤다빈 학생이 '참사람, 큰사람' 분야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며 영예로운 학위를 수여받았다. 또한 토목환경공학부 학생회장을 역임한 윤홍열 학생을 포함한 3명에게는 재학 중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장 특별상이 수여됐다.

김영식 총장은 "정든 캠퍼스를 떠나더라도 대학시절의 열정과 순수함, 그리고 모교에 대한 사랑을 늘 간직하길 바란다.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금오인들이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고 함께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tech+ 리더십 캠프 개최



공학교육을 선도할 차세대 전문 공학인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tech+ 리더십 캠프'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부의 ACE사업(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tech+ 리더십 캠프'는 학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2011년부터 매년 하계방학마다 4일간의 합숙을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중심 공학 인재 양성'이라는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게 리더의 자질과 인간관계 능력 향상, 인성 함양과 관련된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외부 리더십 교육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교육 효과 및 학생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실시된 1기와 8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2기 교육은 학부(과)별 학생 총 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대학의 비전, 인재상 소개부터 21세기 리더의 요건인 창의성 및 대인관계 향상 방안, 목표와 시간관리 방법 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과 함께 나를 표현하는 마인드맵, 나와 우리팀의 스토리텔링 발표 등 팀 프로젝트 참여·발표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한 박소영(에너지융합소재공학부, 3학년) 학생은 "공대생으로서 접하기 어려운 커뮤니케이션 기법과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하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며 "동료 학생들과 4일간의 합숙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학업에 대한 목표를 재정립할 수 있었다"고 리더십 캠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지역고교 연계 특별교육과정 운영



여름 방학을 맞아 지역 고교생을 대상으로 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우리 대학은 7월 1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현일고등학교(교장 장창웅)와 특별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른 지원활동으로 하계방학을 이용해 7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현일고 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인문학개론을 비롯해 과학사, 과학철학, 물리실험 등 8개 과목으로 우리 대학 교양교과과정부 및 응용화학과 교수들이 대학 강의실 및 실험실에서 이론 강의 및 실습을 통해 수업을 진행했다.

특별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현일고 김정현(2년) 학생은 “전공 교수님과 함께한 실험 실습을 통해 과학이론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며 “단한 교실을 벗어나 첨단 기자재가 구비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 마치 대학생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영학 교무처장은 “특별교육과정을 통해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심화과목과 전공예비과정을 계절 학기에 이수함으로써 고교생들의 진로지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도록 협력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대학은 정기적으로 지역의 고교를 방문해 실질적인 진로 및 진학지도 정보를 제공해오고 있으며, 입시설명회 개최와 전공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고교생의 진학 상담을 도와주고 있다.

2015학년도 수시 모집 7.95대 1로 마감



9월 18일 오후 5시, ‘2015학년도 수시모집’ 결과 814명 모집에 6,474명이 지원해 평균 7.95대 1의 경쟁률로 마감했다. 이번 수시 모집에서는 일반학생(적성검사)전형의 기계계열이 1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우리 대학은 그동안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교육 수혜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에 중점을 두며 교과과정 개선과 체계적인 교육을 내실 있게 다져왔다. 그 결과 정부 3대 대형 지원사업인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사업을 통해 받은 지원금은 리더십 캠프, 어학집중 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장학금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취업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9년 연속 ‘다’ 그룹(졸업생 1천명 이상 ~ 2천명 미만)취업률 우수대학에 선정되었으며, 올해는 전국 국·공립 32개 대학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특수목적 해양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국·공립대 중에서는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은 최근 선정된 창조 ICT 융합인재양성사업과 지방대학특성화 사업 등에 선정되며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kit 융합기술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개최

대학 내 연구 역량의 획기적 강화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 집단의 육성, 그리고 차세대 융합형 연구개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kit융합기술원’의 개원 1주년 기념행사가 9월 1일 오후 4시, 글로벌관 융합기술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 대학 부설 13개 단위연구소의 소장과 기업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지난 1년간 실용연구 중심의 R&BD 특성화 대학을 위해 노력해 온 융합기술원의 첫 돌을 축하했다.



kit융합기술원은 현재 차세대 전략분야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융합형 협력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공모를 통해 선발된 ‘민군 IT 융복합 기술’, ‘나노기반 에너지 융합소재’, ‘산업단지 환경 관리’ 등 3개 분야의 우수연구 그룹에 3년간 4억 5천만원의 씨앗형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 우수연구 그룹들은 지난 10개월간 34편의 SCI 논문을 게재하고 16건의 특허를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계 최고의 SCI 상위 10% 학술지 게재논문 5편을 포함해 SCI 상위 25%의 국제저명학술지에 논문 22편을 게재하여 연구의 우수성을 입증하였다. 또한, 1건의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하여 연구 성과의 실용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글로벌 IT 인재양성사업 수주와 방재 관련 전문교육센터 유치 추진하고 2회의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kit융합기술원은 지난 6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조 ICT융합 인재양성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수행할 ‘창조 ICT융합 특성화 연구센터’를 설립함으로써 구미 지역 최초로 전국적 명명도를 가진 대학우수연구센터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PET 기반 캡슐형 내시경’과 같은 모바일, 의료, 소재부품이 결합된 ICT 융합 신제품 연구개발



을 통해 지역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ICT 융복합 산업 전환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it융합기술원 곽호상 원장은 “지역산업과 연계된 차세대 IT 생산기술 분야 등의 특화연구센터를 만들고 대형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하여 명실상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연구기관으로 발돋움 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창조적 ICT융합 인재양성 위한 융복합 창의워크숍 성료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ICT-CRC, 센터장 김동성)는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청운대 및 kit디자인스튜디오에서 'ICT융합 특성화 연구센터 융복합 창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디자인과 공학의 융합을 통해 혁신 시너지를 유발하고 창조적 ICT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금오공대 ICT-CRC와 홍익대 IDAS(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간의 융복합 창의 워크숍이다.

이번 워크숍은 융복합 창의 패러다임의 이해를 위한 강연과 참가 대학 사업단이 팀별 주제와 관련한 발표 및 토론을 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날은 YB&Partners 정용빈 대표의 '융복합 창의'에 대한 초청강연을 시작으로, 홍익대 IDAS(국제디자인대학원대학교) 나건 교수가 '창의디자인 프로세스와 방법론'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이상홍 센터장이 'ICT R&D 정책방향 및 관리'에 대해 강연하였다. 둘째 날은 미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해 참여 학생들의 창의적 브레인스토밍과 집중 워크숍이 이어졌다.

김동성 ICT융합 특성화 연구센터장은 "이번 대학 및 학제간 융합 워크숍은 창조와 융합, 스마트 시대의 핵심축제제로의 '디자인'과 지역연계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ICT융합 「기술」 간의 만남으로 새로운 가치 창조의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창의적 ICT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이러한 융복합 워크숍을 꾸준히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제3회 산업 IT융합 국제 워크숍 개최



우리 대학 ICT융합특성화연구센터(센터장 김동성)가 국제교류교육원(원장 박준영)과 공동으로 9월 19일, 제3회 2014 산업 IT융합 국제 워크숍(WIITC 2014 ; International Workshop on Industrial IT Convergence)을 개최했다.

김영식 총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 기관들의 기초 발표와 함께 홍익대 IDTC(국제디자인트렌드센터) 나건 센터장의 특별강연이 이어졌으며, 각 학교별 ICT 융합교육기법에 관련된 강연과 약 70여 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됐다.

이번 국제 워크숍에는 총 5개국, 8개 기관(금오공대, 홍익대, 텔콤대학(Telkom University), 삭시온대학(Saxion University) 등에서 온 100여 명의 국내·외 학자 및 학생들이 참여했다. WIITC 워크숍은 제1회 인도네시아 반둥시, 제2회 베트남 다낭시에 이어 우리 대학에서 제3회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 워크숍 관계자는 향후 참여 국가와 참여 기관을 확대해 IT융합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워크숍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성 ICT융합 특성화 연구센터장은 "이번 국제 워크숍을 통해 기업 및 산업 분야에 필요한 ICT융합 기초 및 응용기술의 국제 트렌드 및 방향성을 확보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우수 인력양성 및 국제교류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제23회 kit+ 산학연관 포럼 열려



제23회를 맞이하는 'kit+ 산학연관 포럼'이 8월 3일 오전 7시 30분, 청운대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중소기업과 연계된 기술개발과 창업 등의 벤처 생태계 내용을 소개하고 창조경제를 구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특히 배웅국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의 초청 특강인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이 되는 기술 사업화'는 포럼에 참석한 산학연 관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배웅국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은 "국내외 경제환경과 기술환경의 변화로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연구소는 인력양성과 지식창출,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인프라 조성 및 정책 지원을 통해 지속발전형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식 총장을 비롯해 kit+ 산학연관 포럼 회원과 지역 기업체 CEO 및 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여, 구미지역 산업체와 대학, 연구기관, 지자체의 협력과 기술 융복합 지원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엘링크링거 코리아(주)와 산학협력 협약 체결



9월 29일, 글로벌 자동차부품생산 기업인 엘링크링거 코리아(주)(대표이사 김태곤)와 연구 및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상호협력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총장이 직접 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체결됐다. 양 기관은 연구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의 공동활용, 산업체 현장실습 및 취업연계협력, 기술 및 학술정보 교류 등을 통해 산학 공동연구 및 관련 협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다.

김영식 총장은 "차별화된 기술을 지닌 글로벌 기업인 엘링크링거 코리아(주)와의 산학협력은 양 기관의 상호 긴밀한 협력 시스템 구축과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기적이고 성공적인 산학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엘링크링거 코리아(주)는 독일에 본사를 둔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으로 엔진부품인 Gasket과 Cam Cover Module, 열과 소음 관련 Heat Shield 제품을 생산하며 유럽, 미주, 아시아 등 24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최근 '현대모비스 납기우수업체상'을 수상하였고, 10월 'GM SQ EXCELLENT AWARD 2014'를 수상할 예정이다.



총장동정



▲ 김 영 식 총장

2014년 8월	2014년 9월
3일 ABBI총회(~7일)	1일 kit 융합기술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16일 가족회사 방문(프로템)	3일 kit* 산학연관 포럼
21일 학군단 하계 훈련 격려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4일 사회복지시설 방문
22일 2013 후기 학위수여식	5일 기성회이사회
28일 신입교수 임명장	12일 2014 네임데이(금오공대의 날)행사
2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참석	13일 글로벌리더 양성분야 더프라이스 업무 협약
	26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포럼 금오공대 정책자문단 회의
	29일 산학협력협약 체결(엘링크링거코리아)
	30일 지역중심총장협의회(~10월1일)

발전기금 용도

학술 연구 기금	학술 연구 지원, 국제 학술 교류 지원, 교수 해외 파견 지원, 공동 연구지원 저명 교수 초청 지원, 국제 학술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수준 높은 대학 교육을 실현
도서관 기금	대학교서관의 국내외 학술 도서의 구입과 각종 문헌의 확보 및 도서관리의 전산화를 기하여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
장학 기금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능력과 자질을 갖춘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현
외국인장학기금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증진을 위한
연구기자재기금	첨단 과학과 기초 과학의 연구 및 교수에 필수적인 최신 연구 기자재를 확충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실현
시설 확충 기금	교육 및 연구 시설과 후생 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교수 및 학생들의 교육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보다 안락한 교육 여건을 조성
대학 문화 기금	학생들의 대학 문화 활동에 편의를 도모
대학에 일임 기타	금오공대 우선사업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금오공대에 위임 기부자가 희망하는 경비 등

교원 인사발령

발령일	이름	발령 사항	소속
2014. 08. 31.	하 천 수	정년퇴직	전자공학부
2014. 09. 01.	김 성 범	창업진흥센터소장 겸보	IT융합학과
2014. 09. 01.	윤 관 한	그린화학소재 창의인재 양성사업단장 겸무	에너지융합소재공학부
2014. 09. 01.	홍 성 옥	융합형 프로 메카트로닉스 인력양성사업단장 겸보	기전공학과
2014. 09. 01.	조 경 식	첨단소재·부품 자기주도형 창의교육사업단장 겸보	신소재시스템공학부
2014. 10. 01.	양 연 모	승진(조교수 → 부교수)	전자공학부
2014. 10. 01.	이 현 권	승진(조교수 → 부교수)	신소재시스템공학부
2014. 10. 01.	김 경 진	승진(조교수 → 부교수)	기계시스템공학과
2014. 10. 01.	정 현 민	승진(조교수 → 부교수)	응용화학과
2014. 10. 01.	김 귀 곤	승진(조교수 → 부교수)	경영학과

신임교원 소개

(2014. 9. 1. 자)



임원수(전자공학부)
- 전공 정보통신공학
- 한국항공대 학사
광주과학기술원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박사



강봉철(지능기계공학과)
- 전공 기계공학
- 국민대 학사
한국과학기술원 석·박사



최호중(메디컬IT융합공학과)
- 전공 전자공학
- 경희대 학사
(미)남가주대 석사
(미)남가주대 박사



송지혜(교양교직과정부)
- 전공 국어국문학
- 경북대 학사
경북대 석사
경북대 박사



김영형(IT융합학과)
- 전공 산업경영
- 금오공대 학사
금오공대 석사
금오공대 박사

직원 인사발령

발령일	이름	발령 사항	소속
2014. 08. 01.	최 민 우	전입(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 금오공과대학교)	사무국
2014. 08. 01.	김 민 지	의원 면직	학생처
2014. 09. 01.	박 명 지	신규 임용	전자공학부
2014. 09. 14.	유 은 미	육아 휴직	입학관리본부
2014. 09. 14.	이 금 화	승진(행정서기보 → 행정서기)	학생처
2014. 10. 01.	조 소 휘	의원 면직	경영학과
2014. 10. 01.	박 연 정	의원 면직	학생처
2014. 10. 01.	심 미 정	의원 면직	도서관
2014. 10. 01.	강 선 화	복직	교무처

발전기금 기탁자 명단

(2014. 8. 1. ~ 2014. 9. 30.)

5백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재)에스엘 사랑의 열매 심산련장학재단	최용호 금오엔지니어링 박준서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1백만원 이상	신경식 생활관 정재훈 기획협력처
두산연강재단 삼성복지재단 (주)KT&G 대구본부	박현규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7)
이진덕 토목환경공학과 정용호 정용호 법무사	최영규 공동실험실습관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	나윤미 대학원
채 석 전자공학부 안희욱 전자공학부	김도형 동문(환경공학전공 '98)
김귀곤 경영학과 최은오 동문(전자전산 '82)	한희중 사무국
50만원 이상	유광희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김덕희 인애과학	서홍진 정보전산원
50만원 미만	양유진 구미시민
김진순 신동아인쇄기획	박명지 구미시민
임춘미 옥류정	강지혜 구미시민
강전학 데이터콤	김은정 구미시민
도경원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5)	오현숙 구미시민
김용원 응용수학과	심미정 도서관
오순문 사무국	진종영 동문(컴퓨터공학과 '93)
윤봉길 기획협력처	심민섭 동문(산업경영학과 '96)
이영순 전자공학부	배호균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김재준 동문(소프트웨어공학전공 '03)
	최현주 학부모(메디컬IT융합공학과 '12윤지호)
	여동규 동문(컴퓨터공학과 '91)
	안태욱 동문(컴퓨터공학과 '94)

발전후원금 모금액

월 별	모 금 액
2014년 1월 ~ 9월	485,083천원